
근대 대변별신긱의 변천사
- 일제강점기 및 새마을운동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

문혜진 / 한양대학교 강사

목 차

I. 머리말	III. 새마을 운동과 대변별신긱
II. 일제강점기 대변별신긱	1. 새마을 운동기 대변별신긱
1. 일제강점기 마을긱 정책	2.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변별신긱
2. 일제강점기 대변별신긱 양상	I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I. 머리말

부산의 대표적인 공동체 제의인 동해안별신긱의 제의가 연행되는 공간은 그 시대상과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내포하면서 복합적 장소가 된다. 특히 부산시 기장 대변의 경우 조선시대 260년간 기장의 중추적인 수군기지로서, 일제강점 이후 일제의 어업권 약탈과 일본인 이주 어촌형성에 의해 일본의 핵심적인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해방 이후 새마을운동의 미신타파 정책과 민족주의·지방 특수주의 문화재 지정 정책에 의해 대변별신긱은 동일한 장소에서 복합적 경험성을 내포하며 변화되어 왔다.

기존의 동해안별신긱 연구는 제의 자체의 구성과 형태, 무가(巫歌), 제의절차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¹⁾

1) 최길성, 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편, 문화재관리국; 이두현, 1984, 「동해안별신긱」,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62호, 문화재관리국; 김선

한편 최근에는 제의에만 초점을 맞춘 탈역사적 연구에서 벗어나 동해안별신굿의 공동체신앙 양상 및 그 전승방식의 변화, 축제성을 다룬 다변화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²⁾ 반면 부산의 대표적인 기장별신굿에 대한 연구는 윤동환의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2010)·심상교의 「영남동해안지역 풍어제의 연행특성과 축제성」(2005)에서 경상도의 별신굿 사례들 중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과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부산의 당제』(2005) 보고서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이 두 편의 글에서도 기장별신굿을 소략하게 다루어 기장별신굿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장의 별신굿은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공동체 제의로서, 현재 두호-대변-학리-칠암-이천-공수가 6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 7일간 별신굿을 지내고 있다. 동해안별신굿은 속초·강릉·삼척·울진·영덕·포항·울산·부산 등의 동해안 해안선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굿이며, 그 중에서도 7일간 안굿과 밖굿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기장별신굿은 동해안별신굿 중에서도 연행기간이 가장 길며 굿거리 수가 가장 많다.³⁾ 실상 7일간 별신굿을 연행하

풍 외, 1994,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박경신·장휘주, 2002, 『동해안별신굿』, 화산문화 등이 있다.

2) 심상교, 2005, 「영남동해안지역 풍어제의 연행특성과 축제성」, 『한국무속학』 제10집; 이창연, 2011, 「촌락공동체신앙 전승의 현재적 의미: 경북 문경시 부곡리 별신굿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9권; 윤동환, 2008, 「동해안 굿의 전승주체와 문화창출」, 『한국무속학』 제17집; 조정현, 2008, 「동해안별신굿의 토대와 물질문화 전승」, 『한국무속학』 제17집 등이 있다.

3) 2013년 기장 대변별신굿은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연행되었다. 제의의 순서는 2월 14일 안비나리(제주집굿)→당맞이굿(대변 골매기할매제당-대변 산신제당-대변 거릿대장군제당-무양당산-연화리 장승-연화리 할매제당-연화리 갯가-대변 제2할매제당)→문굿(굿청을 열고 굿을 시작하는 굿거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2월15일부터 안굿(여신 또는 마을 내의 신을 위한 굿)이 시작되었는데, 15일은 가망굿→세존굿→계석굿(영도할매 제석굿)→산신령굿→부인굿이, 16일은 성주굿, 천왕굿, 손님

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인적·물적·경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동해안별신긱 중에서 유일하게 7일간의 제의를 이어나가는 전승력의 가치에서 기장별신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장별신긱 중 가장 규모가 큰 대변별신긱을 그 연구대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새마을운동을 거쳐 현재까지의 대변별신긱의 제의 공간·전승주체·제의에 있어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승주체의 경험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새마을운동까지 별신긱을 경험한 주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제의 공간 및 제의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7일간의 대변별신긱을 참여 관찰하였다. 이 글은 기존에 간과되어왔던 기장별신긱을 재조명함으로써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부산별신긱의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 일제강점기 대변별신긱

1. 일제강점기 마을긱 정책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의한 종교식민화 정책은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으로, 위로는 1910년 일제강점 직후 대한제국의 국가제사를 폐지하고 이를 국가신도(國家神道)⁴⁾의 제전⁵⁾으로 대체하였으며,⁶⁾

긱, 대왕긱, 걸립긱 순으로 연행되었다. 17일에는 밖긱(남신 또는 마을 외의 신을 위한 긱)이 시작되었는데, 17일에는 황제긱→대신긱→가망긱→세존긱→도둑잡이→제석긱이, 18일에는 장군긱→선생긱→심청긱→군웅긱→물국제석긱, 19일에는 부인긱→천왕긱→용왕긱→축원긱, 20일에는 장수긱→걸립긱→월래긱→영산맛이→뱃노래→대거리긱 순으로 진행되었다.

4) 국가신도란 1868년 메이지유신에서 태평양전쟁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약 80년에 걸쳐 일본 국민에게 강제된 국가종교이며, 막말(幕末) 유신기 신도의 흥륭을 배경으로

관아 내에 위치한 한성부의 부군당⁷⁾을 비롯한 지방의 수호신을 모시는 지방 관아의 관행제(官行祭)를 폐지하여 신사의 마츠리(祭り), 필자주-일본의 마을굿)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즉 1910년 8월 일제강점이 되면서 조선의 관아 및 관행제는 자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조선의 관료대신 조선총독부와 그 행정 관료들이 참석하는 각 지방의 대표신사의 마츠리가 이를 대체하였다.

아래로는 해방 전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온 정동(町洞)·읍면(邑面) 단위의 마을공동체 의례인 마을굿⁸⁾을 미신으로 치부하여 1912년부터 <경찰범처벌규칙>⁹⁾을 통해 통제하였다. 특히 1930년

신사신도와 황실신도가 결합되어 형성된 민족종교이다(村上重良, 2006, 『国家神道と民衆宗教』, 吉川弘文館, 78쪽).

- 5) 국가신도의 제전은 황실제사를 모태로 창출되어 1907년 내무성이 「신사제식행사작법(神社祭式行事作法)」을 공포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신사제식이 획일화되었다. 이후 신사제사의 통일을 제도면에서 확립하기 위해서 1914년 1월 「신궁제식령(神宮祭式令)」과 「관국폐사 이상 신사제식(官國幣社以上神社祭式)」을 칙령(勅令)으로, 「관국폐사 이하 신사령(官國幣社以下神社令)」을 내무성령으로 정했다(村上重良 2007, 『天皇制国家と宗教』, 株式會社 講談社, 188~189쪽). 이러한 국가신도의 제전은 1915년 7월 식민지 조선에 창건된 신사의 사격(社格)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다.
- 6) 문혜진, 2014, 「1930년대 심전개발운동과 마을굿: 무라야마 지준의 『부락제』와 경성부 마을굿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vol. 15, 121~122쪽.
- 7) 이수광의 『芝峯類說』에서는 “오늘날 풍속이 아문(衙門)에는 대개 기도하고 제사지내는 곳을 두었는데, 이것을 부군(府君)이라 한다. 새로 부임하는 관원은 반드시 여기에 제사를 올렸는데, 이를 복을 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부군당은 도성 내에 있는 육조(六曹)를 비롯하여 한성부, 사헌부 등 조선전기에 건립된 대표적 관아 내부에 존재하는 신당이였다(유승훈, 2003, 「京江邊 府君堂의 性格과 歷史的 發展 樣相」, 『서울학연구』 20, 104쪽).
- 8) 조선의 마을굿의 의례는 유교식 제례 후 굿으로 진행되는 마을굿과 각각 유교식 제례만을 올리거나 굿으로 제사지내는 마을굿이 있다. 이 글에서는 위 3가지 의례 양식을 마을굿으로 총칭한다.
- 9) 일제는 <경찰범처벌규칙>에서 “함부로 길흉화복을 설하고 부주(符呪)를 써주거나, 미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병자에 대한 금염(禁厭), 기도(祈禱), 부주(符呪) 또는 정신요법을 시술하고 신부(神符), 신수(神水) 등을 주고 의료를 방해하는 자”를 경찰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470호, 1912, 933-934쪽). 따라서 무업(巫業)이 처벌대상이 됨으로써 무당이 주재하는 마을굿은 단속 대

대 이후로는 1932년의 미신취체안과 1933년 무너취체법규를 통해 마을굿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1936년의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의 일환으로 읍면의 마을굿을 신도의 의례로 포섭시키려는 정책을 펼쳤다.¹⁰⁾

1936년 심전개발운동은 교파신도(敎派神道)를 제외한 조선의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의 공인종교나 그 외 이용 가능한 신앙·교화단체의 협력을 끌어내어 조선인에게 국체관념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¹¹⁾ 그 중 조선의 토착종교인 마을굿의 경우 조선의 소규모 지역사회가 지닌 전통성의 중심에 있는 민간신앙 대신에 일본의 국체관념을 배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동시에 일본의 국가신도를 조선의 이른바 '향토'에 개입시켜 자치 개편 후의 사상으로 삼기 위한 데 있었다.¹²⁾

구체적으로 일제는 심전개발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의 신령들을 총칭하는 국혼신(國魂神)을 신사(神社)의 제신으로 편입시켰으며, 갯생지도부락의 성황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굿이 배제된 마을굿과 마츠리의 동일한 의례 구조로 재창출된 농신단제로 대체하려 했다. 특히 일제는 조선 지역 고유의 수호신인 성황 대신 농신이라는 무채색의 보편적 신을 도입하여 조선의 신령을 점진적으로 배제하고, 민중에게 부담이 된다는 명목 하에 무당에게 지불할 제비추렴을 폐지하여 마을굿에서 조선 고유의 의례인 굿을 없애려 했다.¹³⁾ 농신단제의 사례와 같이 '성황'이라는 조선 지역 고

상이 되었다.

10) 문혜진, 2014, 「앞의 논문」, 197쪽.

11) 青野正明, 2010, 「朝鮮總督府の「心田開發運動」と「類似宗教」彈壓政策」, 『동국대학교 일본학』 31권, 169쪽.

12) 주영하, 2009, 「조선의 제사와 사회교화론」, 주영하, 남근우, 임경택(공저),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민속』, 한국학중앙연구원, 164쪽.

13) 문혜진, 2014, 「앞의 논문」, 185쪽.

유의 수호신을 배제하고 민족적 특색이 없는 보편신인 '농신'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동해안의 '별신굿'을 '풍어제'라는 명칭으로 바꿈으로써, 조선 고유의 '별신'을 '풍어의 신'이라는 보편적인 신으로 대체하려 한 사례와 관련된다.¹⁴⁾

즉, 일제강점기 마을굿 정책은 한일병합으로 조선의 관행제가 폐지된 이후 1912년 <경찰범처벌규칙>을 통해 마을굿의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정동·읍면 단위의 소규모 마을굿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으로 일제가 전시체제에 들어감으로써 황민화 정책이 실시되어, 신사 확충정책을 통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동시에 '미신취체안'과 '무녀취체법규'를 통해 민중종교인 조선의 무속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1930년대 일제의 경찰력의 증강과 마을굿에 대한 통제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3·1운동으로 인한 <정치범처벌법>과 1941년의 <예비검속법>¹⁵⁾에 의해 경찰력이 독립운동의 탄압과 전시동원체제의 강화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을굿의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⁶⁾ 일제강점기에 별신

14) “굿하는데 ‘풍어제’라고 풍년 ‘풍(豊)’자, 고기 ‘어(魚)’자, 고기가 많이 나아...조선총독부로 올라가니깐...그래 이 별신굿 이름을 풍어제(豊漁祭)라고 명칭을 바꿔가 이래가 굿하는 데. 허가, 일본 사람들이 인자(이제) 일본말을 아는 사람이 주재소 소장한테 허가를 내가(내어) 할 때 풍어제라고 이름은 제출서로 서류로 한 장 써라...그래 제출서를 쓰러 인제 동네 사람들 해도 무당들이 써가 가야 됩니다. 내가 굿의 책임자면 내가 써서 주재소로 가야 되는데...(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에서 채집한 김석출 구술채록편을 윤동환, 2010,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293쪽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별신굿의 명칭은 풍어제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별신굿과 풍어제를 동일한 명칭으로 혼용하고 있다.

15) 일제식민지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로 당시 식민지 조선에 대한 탄압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히, 일제는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전시체제를 구축하면서 1941년 식민지 조선에 "조선정치범 예비구금령"을 시행한 바 있다.

16) 문혜진, 2014, 「앞의 논문」, 193쪽.

곳이 연행된 지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일제강점기 지역별 별신굿 분포¹⁷⁾

지역	일제강점기 별신굿
경기도	양평, 안성, 진위, 광주
충청도	진천, 충주, 목계, 갈천, 오터, 은산
강원도	고성, 강릉, 삼척, 춘천, 원주, 인제, 양구, 정선, 횡성, 평강
경상도	안동, 문경, 경주, 영덕, 홍해, 울진, 매화, 영해, 동래, 거제도, 남해안 일대(통영, 한산도, 사랑도, 육지도, 갈도, 죽도 등)
전라도	광주, 여수, 모성, 운주, 호남 남해안과 서해안
북한	희천, 정주

위 <표 1>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경상도에서 연행된 별신굿 중 기장별신굿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기장이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朝鮮の郷土娛樂』(1936) 및 『部落祭』(1937)나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朝鮮巫俗の研究』(1937) 등의 마을굿 조사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기장 대변의 김덕만(1930년생)씨와 기장 학리의 장칠룡씨(1922년생)에 따르면 기장의 대변, 학리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별신굿을 3년에 한 번씩 지냈다고 한다.¹⁸⁾

2. 일제강점기 대변별신굿 양상

기장 대변리는 조선시대 수군기지가 있었던 대변마을과 남산 봉군의 무영(武營)이 있었던 무양(武陽)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기장 대변리는 18~19세기 동안 260년을 넘게 기장진(機張鎭)¹⁹⁾으로

17) <표 1>은 이창언의 「촌락공동체신앙 전승의 현재적 의미: 경북 문경시 부곡리 별신굿을 중심으로」(2011) 중 234쪽과 윤동환의 「무속신앙: 별신의 양상과 성격」(2005)중 267~278쪽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18) 2013. 2. 16. 기장 대변 노인정에서 김덕만씨 인터뷰; 2014. 2. 15. 기장 학리 당집에서 장칠룡씨 인터뷰.

19) 대변항을 인접한 기장읍 죽성리 일원에 1510년에 두모포진성을 축성하고 종4품

수군이 주둔하여 기장관방의 해상 방어요새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곳에는 전선(戰船)이 있었고, 이 전선과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주사(舟師)가 있었다. 이후 기장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거 1914년 4월 1일 동래군으로 편입되었다.²⁰⁾ 일제강점기 들어서 대변은 기장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중심적인 무역항이 되었으며, 조선인 약 200가구에 일본인 약 14가구가 살았다.²¹⁾ 이는 1908년 11월 <韓日漁業協定>의 체결과 <韓國漁業法>의 제정 공포를 통하여 조선연해 어장 전역에서 일본인들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제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이주장려정책에 힘입어 일어난 이주어촌이 형성되기 시작한²²⁾ 시대상을 투영하고 있다.

대변리에 거주한 일본인은 14가구로 조선인 200가구에 비해 비교적 소수였기 때문에, 조선인 가구와 일본인 가구가 한데 뒤섞여 살았으며, 일본인 사창가인 청로가 대변항에 들어섰다. 하지만 조선인과 일본인 가구가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심상국민학교(현 대변초등학교)에, 조선인들은 기장 읍내에 위치한 기장국민학교에 다녔고, 일상생활에서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대변의 무속 및 마을곳의 통제기관인 지소(일본 경찰서)는 아래의 <사진 1>과 같이 현 수협 근처의 편의점(세븐일레븐)에 위치했으며, 공식적인 사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²³⁾ 아

의 수군만호를 두어 기장진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부산 초량으로 진을 옮겨 갔으며, 그 후 1631년부터 대변항이 기장진의 역할을 260년 넘게 하였다(黃龜, 2013, 「18~19세기 기장수군(水軍)과 남산봉군(烽軍)」,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별 사료조사위원 워크숍』, 국사편찬위원회, 56쪽).

20) 黃龜, 2013, 『앞의 책』, 56쪽.

21) 2013년 2월 15일 대변 노인정에서 김덕만씨(1930년생, 남) 인터뷰.

22) 조정현, 2008, 「동해안별신국의 토대와 물질문화 전승」, 『한국무속학』 제17집, 160쪽.

23)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동래부는 부산부로 편입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부산

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²⁴를 모신 신명신사(神明神祠)가 현재 대변수협 뒤의 제2할머니당 위쪽에 위치했다고 한다.²⁵

일제강점기 당시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²⁶의 허가기준은 엄격했으며, 대변리의 신명신사는 사각 단 위에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또 사각 단을 씌운 형태²⁷로 아마테라스 신체(神體)를 보호할 최소한의 사당이라든지 담 등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신사(神祠)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변에 거주한 일본 주민 14가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건립한 신명신사는 조선인 신사참배 강제에 이용되지 않았으며, 일본인들이 설(양력 1월 1일)에 북을 치며 줄을 지어 신사까지 인사하러 가는 일본인의 마츠리 및 일본인의 민간신앙 생활에만 이용되었다.²⁸ 해방 후 일본인들은 밀항선으로 도주하기 바빴기에 대변

부에는 용두산공원에 용두산신사(龍頭山神社)와 용미산신사(龍尾山神社), 동래부 동래읍에 신명신사(神明神祠), 동래부 구포면에 신명신사, 부산부 청선정(淸仙町)에 삼도신사(三島神祠), 부산부 부암리에 천만신사(天滿神祠)가 존재했다(岩下傳四郎, 1941, 『大陸神社大觀』, 大陸神道聯盟, 401~403쪽).

- 24) 아마테라스는 『고사기』 등의 신화에 등장하는 일본 천황의 최초의 조상신이다.
- 25) 2013년 2월 15일 대변 노인정에서 김덕만씨(1930년생, 남) 인터뷰.
- 26) 신사(神祠)는 신사(神社)의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 간소히 신사(神社)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917년 3월 22일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공포된 「神祠에 관한 건(神祠に關する件)」에 따르면, 신사(神祠)라고 칭하는 것은 신사(神社)가 아니며 공중(公衆)에 참배시키기 위해 신사(神祠)를 봉합사(奉合祀)하는 것을 말한다. 신사(神祠)를 설립하려면 승경자가 될 만한 10인 이상이 연서(連署)해야만 하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신사(神祠)는 신사(神社)에 비하여 제반의 설비를 간단하게 하여 지방주민의 사정에 따라 일반 신사(神社)의 형식을 구비한 신사(神祠)를 창립하기 어려운 곳에 한해서 그 지방주민에게 경신(敬神)상 만족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례를 만든 것이다. 신사(神祠)의 칭호는 될 수 있는 한 체신과 신명(神名)이 부합하는 보통명사를 선택해야 했으며(예를 들어 아마테라스를 체신으로 할 경우는 神明神祠라고 함), 담당 신직을 정해 제사를 위탁 하도록 했다(辻子実, 2003, 『侵略神社』, 新幹社, 192쪽).
- 27) 2013년 2월 16일 대변 노인정에서 김성광(1944년생, 남) 인터뷰.
- 28) “기억에 하끼마끼(필자주-袴: 일본 전통 겜옷)하고. 그래가지고 풍물 두드리고. 뭘 간단하게 북 두드리는거지. 나팔 불고 이런 거는 없고. 일본 사람들이 신사 앞에다

넘어 강계고개에 위치한 조상묘²⁹⁾와 신사(神祠)를 방치하고 떠났으며, 신사는 해방 후 김성광씨 등 유년시절 장난삼아 해체하여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테라스 신체로 도자기 그릇이 들어있었다고 한다.³⁰⁾

<사진 1> 일제강점기 대변 지소 및 신명신사 위치



일제강점기 대변에 지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굿하기 전에 지소에 신고만 하면 대변별신굿뿐만 아니라 배고사, 병굿, 오귀굿, 용왕굿(익사자 낚건지기 굿) 등의 개인굿도 지소에서 제재하지 않았다.³¹⁾ 이는 1930년대 경찰력이 3·1운동으로 인해 독립운동의 탄압과 전시동원체제의 강화에 동원되었기 때문

인사하고, 동네 안돌고, 북 두드리고 신사만 왔다갔다.”(2013년 2월 20일 대변 노인정에서 김덕만씨 인터뷰).

29) “일본사람은 죽으면 저 산에 너매, 산에 야키바(필자주-화장터)가 있어. 불에 화장을 해가지고, 산에 묻었어. 비석해가지고. 우리 요새 이름으로 하면 강계고개에 있었어. 아직도 비석이 막 쓰러져가 있어. 일본서 자식들이 한 번씩 오는기라. 인사 할라고.”(2013년 2월 17일 대변 노인정에서 김덕만씨 인터뷰).

30) 2013년 2월 16일 김성광씨 인터뷰; 2013년 2월 17일 김덕만씨 인터뷰.

31) “일제강점기 때 (오귀굿) 많이 했지.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게 왜놈들이 못하게 막고 그래도, 그래도 했거든요. 이 동네 풍어제도 신고를 했고. 신고를 안 하면 못하게 하니까.”(2013년 2월 15일 대변별신굿 굿당에서 양중 김용택 인터뷰).

에, 일제가 정책상 마을곳 등 무속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무속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³²⁾

특히 일제강점기의 대변별신곳에 대해 김덕만씨는 “왜정 때 (별신)곳 했어. 3년에 한번 씩. 별신곳이라고도 하고 풍어제라고도 했지. 별신곳이 풍어제고 풍어제가 별신곳이지. 동네 이장이 주체가 되자, 그 때는 쌀도 한 말씩 내는 사람은 내고 그렇게 해갔고 했지. 할매당은 저 밖에서 모셔놓고, 무당들이 굿할 때 모시고 오고 그라데...(제주 선정 방법) 옛날에는 대라는 것이 있다. 무당들이 대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집을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굿장문(필자주-굿 지내기 전에 들이는 치성)도 하고 해야되는기라. (별신곳 안 지내는 해의 마을곳³³⁾) 정월 보름에 1월제만, 6월에 6월제만, 10월에 10월제만을 지냈다 아니가.”³⁴⁾라며 그 당시의 별신곳을 기억하고 있다.

김덕만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변별신곳은 일제강점기부터 풍어제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별신곳을 지내기 전에 대변 지소에 신고를 해야 했다. 지소에 신고를 한 후 별신곳을 열면 일제의 별도의 단속은 없었다. 각 집마다 제비추렴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지냈으며, 제관선정은 무당이나 마을 인근의 점바치(점쟁이)가 대를 잡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제주는 별신곳을 지내기 전에 굿장문이라는 치성을 드리고 굿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추위도 냇가에

32) 문혜진, 2014, 『앞의 논문』, 193쪽.

33) 별신곳이라는 용어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의 세습무들이 연행하는 마을곳을 일컫는다. 이에 해당하는 진라남도 용어는 당산제나 당제라고 불린다(윤동환, 2010, 『앞의 책』, 67쪽; 김형근, 2012, 『남해안굿연구』, 민속원, 347쪽). 따라서 별신곳은 마을곳으로 부산의 경우 적은 경비로 유교식 제례로 올리는 마을곳을 제만, 많은 경비를 들여 크게 여는 마을곳을 별신곳으로 볼 수 있다.

34) 2013년 2월 15일, 17일 대변 노인정에서 김덕만씨 인터뷰.

서 목욕재계를 했다. 또한 제물을 장만할 때 말을 하지 않거나 1년간 길흉사에 가지 않는 금기를 지켜야 했다. 별신굿을 하지 않는 해에는 음력 정월 14일, 음력 6월 14일, 음력 10월 14일에 제만(필자주-유교식 제례로 올리는 마을굿)을 할머니당에 올렸다. 그 외에 별신굿을 연행한 기간, 굿거리의 제차, 주무(主巫) 및 제물 등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일제강점기 사료 중 기장(또는 대변)별신굿을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대변과 거리상 가까운 동래별신굿 및 거제도별신굿을 통해 일제강점기 대변별신굿의 연행 과정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부 동래별신굿

마을사람 중에서 신년운수에 길한 점괘가 나온 사람을 제주로 뽑아서 정월이 되면 곧 목욕재계하여 정성을 다한다. 제주의 가족도 역시 부정이 타지 않도록 애쓴다. 정월 보름 밤중에 제주 홀로 마을의 사당(끝목이님)에 제사를 올린 후, 다음날 16일부터 무녀를 불러 별신을 한다. 별신을 위해서는 별신대를 세워 그 아래 자리를 펴고 병풍을 쳐서 내림대로 삼는다. 그 앞에 차린 제단에 여러 가지 제물을 가득 준비하고 무당은 춤을 추며 경문을 읽는다. 이때 무당 한명이 한 장의 경문을 외는데 거의 두 시간 이상 시간이 걸린다. 무녀는 교대로 경문 또는 주문을 외며 여러 신들에게 기도하며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번창을 기원한다.³⁵⁾

경상남도 거제도별신굿

3년에 한 번하는 별신굿은 여러 명의 무녀와 무악을 담당하는

35) 무라야마 지준의 『朝鮮의 郷土娛樂』(1941) 중 동래부 별신굿 부분을 윤동환의 「별신의 양상과 성격」(2005) 중 274쪽에서 재인용하였다.

무부에 의해 행해지는데, 먼저 전야제로서 당산나무(堂山木)가 있는 곳에서 천왕대신(天王大神)을 제사지내고 당산굿(堂山祭)을 지낸다. 이것을 들맞이라고 한다. 다음날은 날이 밝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산신을 제사지내고, 아침식사 후 장승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물(供物)을 올리고 징을 울리는데, 그것은 별신장군(別神將軍)을 제사지내고 잡귀와 객귀(客鬼)를 물리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잔교(棧橋)로 가서 사해용왕을 제사지내고, 이어서 동네 우물의 용신을 제사지낸다.

우물용신의 제사 무렵에는 대체로 저녁이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드디어 별신대로 모여 큰굿(大祭)을 하고, 동대부(洞太夫)라 불리는 부락의 주신(主神)을 제사지낸다. 그것은 부락의 수호신이다. 제단에는 병풍을 쳐서 두르고, 제물을 진설한다. 촛불을 켜고 먼저 주무(主巫)가 절을 올리고, 여러 무녀·무부가 무가무무(巫歌巫舞)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한다. 다음날 점심 무렵이 되면 재차 제물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잡귀에게 소위 물밥(水飯)을 주고 굿을 끝내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복을 하는 순서이다.³⁶⁾

부산부 동래별신과 거제도별신의 공동된 제차는 별신굿을 하기 전날 사당이나 당산나무에서 제사를 지낸 후, 다음날 천왕대(남해안별신굿의 경우 삼한대)를 세우고 신을 청해³⁷⁾ 그곳에 자리를 펴고 병풍을 쳐서 제장을 설치하여 별신굿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36) 秋葉隆, 1933, 『朝鮮民俗』 第一號, 朝鮮民俗學會, 16~17쪽.

37) 남해안별신굿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기대 김형근 선생에 따르면, 현재 남해안 별신굿은 통영 한산면 죽도와 거제 오수리 죽림에서만 전승되고 있는데, 남해안 별신대는 제당 부근에 상설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의 액을 막는 솟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오리형상의 별신대는 마을의 수호 신격으로, 남해안별신굿을 여는 당일 날 삼한대(동해안별신굿의 경우에는 천왕대)를 세워 당신(堂神)을 청하여 당신이 내린 삼한대를 들고 마을의 주신(主神)들을 돌아가며 모실 때 별신대에도 제사를 올린다(2015년 1월 24일 경기대 김형근 선생님 인터뷰).

거제도별신굿의 경우 현재의 대변별신굿과 같이 마을의 주요 신들이 좌정하고 있는 곳들을 두루 돌면서 모셔와 마지막으로 별신대³⁸⁾에 모여 큰굿을 시작하였다. 현재의 대변별신굿의 경우 천왕대로 신을 모셔와 굿을 진행하지만, 남해안별신굿의 별신대(동해안별신굿의 경우 거릿대)는 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대변별신굿에서 함께 모시는 할배당이 있는 연화리의 경우 거릿대³⁹⁾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장승 한 쌍이 남아있어⁴⁰⁾ 대변리의 별신굿도 거제도별신굿의 제차와 유사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부산이나 양산의 제당에서 새 모형을 엮은 거릿대는 제당 앞의 왼쪽에 세워두었으며,⁴¹⁾ 부산시 수영의 제당 왼쪽에 세워진 거릿대의 그림⁴²⁾과 연화리의 나무거릿대의 사진,⁴³⁾ 대변별신굿에서 사용하는 천왕대의 사진은 다음의 <사진 2>와 같다.

38) 솟대, 솟을대, 소주, 수춧대, 하춧대, 버춧대, 팻대, 고릿대 등의 이칭을 갖고 있으며, 나무대 꼭대기에 1개 또는 4개의 새 모형을, 때로는 용·뱀의 모형을 붙인 신대(神竿)를 한반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거제도에서는 이것을 별신대(別神竿)라 하며, 이른바 별신굿의 신대로 되어 있다. 대꼭대기의 새를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오리라 생각하고, 혹은 학이나 봉황으로도 말하고 있다(秋葉隆, 1933, 『앞의 책』, 16쪽). 남해안별신굿의 별신대는 부산에서는 ‘거릿대’라고 한다.

39) 남해안별신굿의 별신대의 경우 1년 내내 당집 근처에 세워져 있으나, 기장별신굿의 거릿대의 경우 별신굿을 할 때 만들어 세운다. 『부산의 당제』(2005)에 따르면 현재 기장에서 거릿대를 세우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기장군 기장을 동부리·기장군 기장을 만화리 동리·기장군 기장을 만화리 서리·기장군 장안을 반룡리 본리·기장군 철마면 구칠리는 옛날에는 오리형상의 거릿대를 만들어 당산나무 옆에 세웠으나 요사이에는 세우지 않는다. 한편 기장군 기장을 사랑리 동암·기장군 기장을 연화리 서암·기장군 정관면 월평리·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동리는 현재에도 당제 또는 별신굿을 올릴 때 오리 형상의 거릿대를 만들어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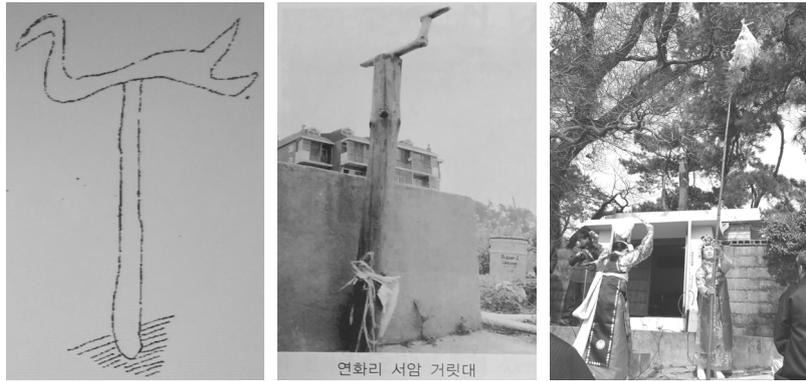
40) 김승찬, 황경숙, 2005, 『부산의 당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501~502쪽.

41) 한일병합 이후 부산부 수영의 백산(白山)에 위치한 제당의 왼쪽 편에 새 형상의 대가 세워져 있었으며, 울산지방의 경우 주로 제당의 오른쪽 편에 새 형상의 대를 세워 두었다고 한다(都甲玄郷 編, 1937, 『釜山府史原稿』, 民族文化, 310쪽).

42) 그림출처는 都甲玄郷 編, 1937, 『釜山府史原稿』, 民族文化, 310쪽이다.

43) 그림출처는 김승찬, 황경숙, 2005, 『부산의 당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502쪽이다.

<사진 2> 일제강점기 부산시 수영의 제당 왼쪽에 세워진 거릿대와 현재의 연화리 나무거릿대 및 천왕대



김덕만씨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대변별신긔의 당집은 4군데 있었는데 대변에 두 곳(현의 할매당, 주사당), 무양리에 한 곳(현 무양당산), 연화리에 한 곳(현의 할배당)이 있었다고 한다. 대변의 할매당에는 ‘동마고대신지위(洞麻姑⁴⁴)大神之位’란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현재 3개의 현판, 즉 1901년(光武五年七月望日)에 쓴 ‘신사중건문(神祠重建文)’, 1984년(西紀一九八四年甲子九月七日)에 쓴 ‘심씨전씨오씨 삼씨골목신주 청조방명기(沈氏全氏吳氏三氏楸木神主 請助芳名記)’, ‘신사당 갑자 1984년 6월 7일 준공 협찬자명록(神祀堂甲子一九八四年六月七日竣工協贊芳名錄)’이 보존되어 있어, 그 창립연도와 동마고대신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중 1901년 7월 15일자로 문위상(文渭祥)이 쓴 신사중건문⁴⁵)에는

44) 마고는 중국의 여자 신선으로 장수의 상징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거인의 여성신이며, 창조주·산신·해신으로 신앙되고 있다(이능화, 서영대 옮김, 2008, 『조선 무속고』, 창비, 443쪽).

45) 참고로 신사중건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과 땅이 정하여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은 사람이 사람의 길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

15명의 찬조자가 모두 92냥의 돈을 모아서 마을 제당을 다시 짓게 된 내용이 적혀있다. 중건문의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이 제당의 건립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건축물이 100년을 간다고 보면 1800년 초에 이 제당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⁴⁶⁾ 또한 할매당의 마고대신은 대변마을을 처음으로 형성한 시조신 전씨할머니로 볼 수 있다.⁴⁷⁾ 2005년 『부산의 당제』에 따르면 할매당의 제신이 김씨라고 되어있는데,⁴⁸⁾ 할매당의 3개의 현판 중 ‘심씨, 전씨, 오씨 삼씨골목신주’라는 현판에서 할매당의 제신이 김씨가 아니라 시조신 중의 한 성씨인 전씨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대변 제2할머니당이 위치한 돌산 건너편(현 수협 냉동창고 부근 인가변)에 주사당이 위치했었다. 대변항에는 18~19세기 동안 260년을 넘게 기장진(機張鎭)으로 수군이 주둔하여 기장관방의 해상 방어요새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곳에는 전선(戰船)이 있었고, 이 전선과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주사(舟師)가 있었다. 실록에서는 주사대장을 ‘舟師大將’으로 표기하고 기장 수군의 주사대장은 ‘舟師代將’ 또는 ‘舟師代長’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임무의 경중에 대한 차이로 임금이 있는 한양지역이 아니고 지

는 신묘한 길을 찾지 않음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마을이 바다에 산이 교차되어 물을 돌려보내는 중요한 곳으로 기장 고을의 요해지로 아홉포구의 빗장과 자물쇠로 알고 있다. 이것은 좋은 징조와 재앙이 어찌 神道가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작게 꾸짖을 수나 있겠는가? 옛날에 사우가 세워져서 손을 씻고 올리는 제례의 유래가 없어지지 않음은 세월이 오래 오래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동안 바람과 비에 맞고 적서져 건물이 쇠퇴하여 무너져 가림막에 의지함이 없는 사당이 되었다. 이제 이런 연고로 다시 건축하여 옛 사람들의 흔적을 이야기하고자 그 계획을 가졌다. 제당 중건은 후손들의 존경심으로 비둘기가 집을 짓는 노력과 개미가 흙을 모으는 공덕으로 일을 맡아서 할 것이다. 이는 후손들이 여러 가지를 잘 모아서 이어갈 것인데, 앞으로 이 사당을 고칠 일이 없을 것이다.”(黃龜, 2013, 『앞의 책』, 60~61쪽).

46) 黃龜, 2013, 『앞의 책』, 61쪽.

47) 2013년 2월 15일 대변 노인정에서 김성광씨 인터뷰.

48) 김승찬, 황경숙, 2005, 『앞의 책』, 483쪽.

방인 관계로 ‘큰 대(大)’ 자를 대신하여 ‘대신 대(代)’자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장수군의 주사에 대한 내용을 1992년 12월 30일에 재부기장군향인회에서 발행한 『구기장군향토지(舊機張郡郷土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대변항에 주사가 있었는데, 대장(代將) 1명, 병선장(兵船長) 1명, 선직(船直) 1명이 있었고, 이는 경국대전에도 없는 작은 진영의 수장(守將)으로서 종9품직이라 한다. 주사가 있는 곳을 주사창(舟師廠) 또는 전선창(戰船廠)이라 하였으며, 기장현감이 절제도위(節制都尉)로서 진장(鎭將)이다. 기장을 대변항의 언덕배기에 주사대(舟師臺)라 하여 주사를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이곳에 대변항을 축항하면서 그 뒤쪽을 높게 쌓았고, 이 석축 앞에 기장척화비가 있었으며, 그 옆에는 우물 샘이 있었다. 사당 안에는 ‘주사대장지위(主舍大將之位)’라고 최근에 나무로 위패를 만들어 모셨는데, 이는 ‘주사대장지위(舟師代將之位)’를 잘못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이곳을 해사마당이라 하며, 곳은 밤이면 말발굽소리와 울음소리, 처절한 고탈소리가 들렸다고 하므로 이곳이 바로 기장진 자리라고 추정하고 있다.”⁴⁹⁾

즉, 주사당은 기장진의 주사대장을 제사지내는 사당으로 그 창건연대를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 할매당과 함께 별신긱의 제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주사당은 2005년 『부산의 당제』가 편찬될 당시는 존재했으나, 2007년 대변별신긱 때 당집도는 순서⁵⁰⁾에서 빠져 있어 2006년경 도로확장과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당집 옆의 고목만 남은 채 없어진 상태이다. 또한 무

49) 黃龜, 2013, 『앞의 책』, 58~59쪽.

50) 이 글의 17쪽의 <표 2>를 참조할 것.

양리의 제당 무양당산은 대변초등학교에서 연화리로 향하는 대로 건너편에 있는 언덕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당은 시멘트 구조물이다. 제당 안에는 연화광산성광신(蓮花廣山星光神)이란 위패가 제당 중앙 벽면에 걸려 있으며, 제당 우측에는 백지·명태·붉은색 복주머니를 엮어서 걸어 놓은 성주를 상징하는 신체가 걸려 있다. 제단 위에는 두 개의 은색 촛대와 향로가 놓여 있다. 2013년 대변별신굿 당시 건물신축 공사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연화리의 할배당은 연화리의 서북쪽, 즉 공수에서 대변으로 가는 연화리의 도로 위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기장읍의 신암마을(무재)와 서암마을(여리개)를 합쳐 연화리라는 법정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연화리는 1914년 군·면 정비 때 처음으로 표시된 이름이다. 신암마을의 옛 이름은 무재로 무재의 무는 물의 옛말이다. 무재는 물재로서 수군영을 뜻하는 구성이라는 뜻이다. 기장현 읍지에 이곳을 무지포, 무차포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곳은 지금의 대변항을 포함하여 무지포라고 하였고, 기장 고을에서는 가장 큰 포구이며, 예부터 이곳에는 수군의 변방요충지로서 큰 포항, 어포로 중요시하였다.⁵¹⁾

따라서 대변과 연화리는 조선시대의 '무지포'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었으며,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윗당(할아버지당) 아랫당(할머니당)을 마을곳에서 같이 모시기 때문에 대변별신굿 때 연화리 할아버지를 대변으로 모셔와서 할머니와 같이 제사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연화리 할배당의 제단 위에는 '고사당신위(告祀堂神位)'라 쓴 나무 위패가 있으며, 할아버지의 신체로 긴 담뱃대를 모시고 있다. 또한 제당의 제단 정면 벽면에는 대변의 할

51) 향토사연구실, 2012, 『기장의 문화지도: 기장의 아홉포구 답사체험길』, 기장문화원, 70쪽.

머니와 연화리의 할아버지를 상징하는 백지의 직사각형 신체가 두 장 붙어 있으며, 오른쪽 벽면에는 제당의 성주를 상징하는 백지의 고비(필자주-사람형태로 오린 신체)가 붙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대변별신긋을 연행한 단골무당은 김석출씨가 15세에서 18세(1936~1939년)까지 부산에서 활동한 후 주로 경북지역에서 활동했으며 1955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에 거주하며 동해안 남부지역의 긋을 주재했기 때문에,⁵²⁾ 김석출 가계가 일제강점기 당시 대변별신긋의 당주무였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김영달(1922~1987)·김수재(1935~1998) 부부가 부산·기장·대변·일광·두모포·학성·양산 등지에서 활동했으며, 김영달의 누이인 김순기(1918년생)는 심청긋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⁵³⁾ 일제강점기 당시 대변별신긋을 포함하여 기장별신긋의 단골무당은 김영달 가계가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

Ⅲ. 새마을운동과 대변별신긋

1. 새마을운동기 대변별신긋

일제강점기의 대변별신긋을 경험한 김덕만씨에 따르면, 해방 후에도 대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별신긋을 계속해서 지냈다. 그러다가 50년대에 들어 경제적 부담이 커져 5년에 한 번씩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⁵⁴⁾ 새마을운동은 한국인 모두 물질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 지난 1970년대에 시작

52) 윤동환, 2010, 『앞의 책』, 188쪽.

53) 윤동환, 2010, 『앞의 책』, 147쪽.

54) 2013. 2. 15. 대변 노인정에서 김덕만씨 인터뷰.

된 생활개혁운동이다.

이 운동은 1970년 4월 22일 한 해의 대책을 숙위하기 위하여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재민 복구와 아울러 넓은 의미의 농촌재건운동에 착수하기 위하여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부르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1970년 5월 6일 새마을 운동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그 첫째 단계로 농촌 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마을에 시멘트를 지원하고 이를 이용해 농촌 스스로 환경개선 사업을 펴도록 하는 등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⁵⁵⁾

이러한 새마을운동이 마을곳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구습타파'와 관련이 있다. 근대화를 기치로 진보·발달을 추구하던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구습(舊習)의 관행인 전통문화, 그 중에서도 신앙과 관련된 민속종교가 '미신'으로 낙인찍혔으며, 미신이야말로 생활개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통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은 한낱 '미신'으로 추락되고 '미신을 받들던' 마을 제당은 파괴되기 시작했다.⁵⁶⁾ '미신탈파'라는 정신적인 근대화뿐만 아니라 도시와 마을의 외형적인 근대화의 추구로 인해 초가, 물레방아, 마을 제당, 장승 등은 건물신축이나 도로개발로 파손되거나 이전되었으며,⁵⁷⁾ 이에 도시와 농어촌의 마을곳이 '미신'이라는 인식 하에 단절되기 시작했다.

대변별신곳의 경우도 새마을운동의 '구습타파(특히 미신탈파)'의 물결을 피해가지 못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55) 김명자, 2009, 「새마을 운동에 따른 洞祭의 변화」, 『민속연구』 제19집, 179쪽.

56) 김명자, 2009, 「앞의 논문」, 183쪽.

57) 정유진, 2012, 「박정희 정부기 문화재정책과 민속신앙: 국사당과 밤섬부군당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39호, 188쪽.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대변별신긋이 단절된 것이다.⁵⁸⁾ 이 기간 동안 대변별신긋을 지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1980~90년대 대변별신긋 추진위원장을 지낸 김성광씨는 ‘마을에서 감당하기 힘든 제비’를 들었다.

1970~80년대 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일제강점기에도 3년마다 거르지 않고 지내던 별신긋을 70년대 중반부터 근 10년 이상 지내지 않은 것은 ‘별신긋’이 ‘미신’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된다. 실제로 대변별신긋을 왜 지내냐는 질문에 응답한 4명 중 4명이 모두 ‘미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⁵⁹⁾ 기장의 대변뿐만 아니라 학리 집안의 자손들의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성주세존단지를 미신이라 여겨 강물에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였다.⁶⁰⁾

반면 새마을운동 기간 동안 제비가 많이 소요되는 별신긋을 지내지 않았다고 해서, 대변에서 마을긋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아니었다. 대변별신긋을 지내지 않는 십 수 년간 간단하게 당집에 유교식 제례만 올리는 정월제만, 6월제만, 10월제만을 지냈다. 이 제들은 대변마을에서 집집마다 제비추렴을 해서 지냈으며, 제관은 제를 올리기 전에 지역의 점바치나 마을의 신이 잘 내리는 사람이 대를 잡아 그 대가 들어가는 집에서 맡았다. 제관은 일제

58) 2013년 5월 18일 대변노인정에서 김성광, 박대금씨 인터뷰.

59) 2013년 대변별신긋 자문위원 박정만, 80~90년대 대변별신긋 추진위원장 김성광, 마을 옛 주민 배성대, 현 마을주민 박대금은 대변별신긋이 미신이지만 풍어와 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사를 올린다고 답변하였다.

60) 2013년 2월 15일 대변 박소순(87세, 여) 인터뷰; 2014년 2월 24일 기장 학리 이씨(78세, 여) 인터뷰. 반면, 1994~5년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장안면 기룡마을, 기장면 연화마을, 일광면 학리마을의 가신신앙 조사에 따르면, 정월과 8월의 시조단지(성주세존단지) 고사, 조왕제, 성주고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조태흠, 1996, 「기장지방의 세시풍속」, 『한국민족문화』 8, 422-423쪽). 하지만 필자가 2012년 대변·2013년 학리를 조사할 당시는 가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제를 지내기 며칠 전부터 찬물에 목욕재계 하고 1년간 경조사에 가지 못했다. 제는 제관부부가 목욕재계를 하고 대나무를 베어 와서 제당(할매당) 앞에 금줄을 치고 대나무를 쪼은 후, 제당에 솔을 걸고 거기서 제물을 장만하여 제를 올렸다. 이렇게 제를 지낸 후 할매당의 제물을 사용해 세미제(우물제)와 산신제를 같이 지냈다. 그리고 별신굿이나 제만을 지내지 않는 동안 제당을 정결하게 관리했다고 한다.⁶¹⁾

특히 1976년 9월 20일에는 할매제당에서 동쪽에 위치한 산 능선의 소나무 숲속에 시멘트로 만든 산신당이 건립되었다. 산신제당에는 제단과 산신의 신체를 상징하는 위패는 없다. 산신은 산악의 신, 수렵의 신, 농경의 신이며, 산신당은 풍작이나 치병, 기자(祈子) 등 마을 주민들의 모든 소망을 기원하는 장소이다.⁶²⁾ 일제강점기 때의 대변과 기장의 별신굿은 당시 기장 마을들이 반농반어를 생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였다.⁶³⁾ 그것이 일본어업 정책에 의해 동해안이 장악되면서 마을 자체에서 공유하던 어업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조선해수산조합(1903), 조선수산조합(1912) 등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별신굿의 주도 세력이었던 이장단이나 노반회의 권한이 어촌계로 이양되면서⁶⁴⁾ 별신굿에서 풍어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성격변화를 2013년 대변별신굿 중 산신제를 지내는 무당의 기도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61) 2013년 5월 18일 대변 노인정에서 김성광, 박대금씨 인터뷰.

6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자료출처: http://folkency.nfm.go.kr/main/dic_index.jsp

63) “일제 때 (대변에)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았지. 그래가 별신굿 다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 아니가?” (2013. 2. 17. 대변 노인정에서 김덕만씨 인터뷰); “(왜정 때 학리) 반농반어지. 별신 할 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다 같이 제사하지.”(2014. 2. 15. 기장 학리 마을제당에서 장철룡씨 인터뷰).

64) 조정현, 2008, 「앞의 논문」, 160~161쪽.

오늘날 산신님 전에 다 나쁜 액을 물리치고
이래다(이렇게 해서) 영정부정도 가려내고
소지종이에 연기불에 다 이 산천에
드럽고(더럽고) 찬 영정을 씻가내고(씻어내고)
갖다내고(갖다 버리고) 한꺼이(한껏) 보시고
즐겁게 (제사를) 올리께에 봅시고
한 해 바람을 접지하시고 신의 공을 접지하시고
만사가 되게 하고 백사가 되게 하도록 접지하옵소서(소지 올림
)⁶⁵⁾

즉, 위 산신제 축문에서 알 수 있듯이 무너는 산신에게 액을 물리치고 마을의 만사가 잘 되도록 보살펴달라고 빌었다. 특히 '한 해의 바람을 접지하시고'라는 구절에서 산신의 성격이 산의 사고나 농사가 아니라 뱃일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의 별신굿을 경험한 대변의 김덕만씨와 학리의 장철룡씨는 일제강점기 때 별신굿을 마을의 이장단이 주도했으며, 그 당시의 별신굿은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였다고 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어업 소유권이 어업조합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어촌계로 양도되면서 어촌계의 위상강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별신굿에서 풍어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별신굿 굿거리에서 농경 관련 사설과 축원이 감소하고 산신의 성격조차 풍어신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대변에서 1980년대까지 정월제만, 6월제만, 10월제만을 지낼 때 세미제와 산신제를 같이 지낸 점에서도 일제강점기 때도 제만과 함께 산신제를 같이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釜山府史原

65) 2013년 2월 14일 대변별신굿 첫 날, 할매당 제사를 지내던 중 김동언 무녀가 산신당으로 가서 제사를 지낸 축문(祝文)을 채록한 것이다.

稿』 제6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부산 및 양산 일대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 별도로 제당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곳에 대나무를 마름모꼴로 4곳 세우고 금줄을 쳐서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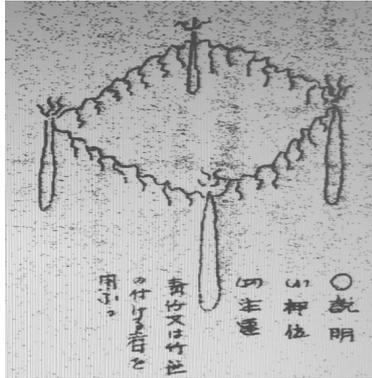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당시 기장은 동래부에 편입되어 있어 부산부의 사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현재 기장의 총 93곳의 당집 중 산신당이나 산신제단이 있는 경우는 총 11곳에 불과하며, 이에 해방 후 마을의 필요에 따라 산신당에 생긴 것으로 유추된다.⁶⁷⁾ 대변의 경우 일제강점기에는 산신당이 없이 제를 지내다가 1976년에 산신당을 짓고 그 앞에서 제를 지내게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산신제의 금줄형식과 대변의 산신당 모습은 다음의 <사진 3>과 같다.

<사진 3> 일제강점기 산신제의 금줄형식⁶⁸⁾과 대변의 산신당

66) 都甲玄鄉 編, 1937, 『앞의 책』, 315쪽.

67) 『부산의 당제』(2005)에 따르면 기장에서는 총 93곳의 마을 제당이 있으며, 그 중 산신당에 있는 곳은 3곳, 당집 앞에 산신제단이 있는 곳은 11곳, 당산나무 밑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 3곳이었다.

68)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는 사방에 잎이 붉은 대나무를 세우고 대나무 사이를 금줄로 연결하여 제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都甲玄鄉 編, 1937, 『앞의 책』, 315쪽).



그리고 새마을운동 기간 동안 뱃사람들은 풍어와 배사고가 없기를 기원하는 대변별신곳을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에서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돌산 중턱에 1982년 7월 19일 풍어와 뱃사람들의 무사귀향을 비는 제2할머니당(귀향당 또는 용왕당)이 생겼다. 제2할머니당의 유래에 대해 김성광씨는 “저 너매 당(제2할머니당)? 귀향당? 귀향당이 여기서 생긴 것은. 바다에 인자 다니는 배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다 사람들이 치성을 들이다보니까 만들어뿌렸다고.”라고 얘기한다.⁶⁹⁾ 새마을운동 시기에 마을곳이 미신으로 인식되고 시대 분위기상 마을곳을 지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변별신곳을 십 수 년간 지내지 않았지만, 뱃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용왕을 잘 모시지 않으면 탈이 난다고 믿었기에 조업을 하러 가기 전에 대변항을 내려다보고 있는 돌산을 향해서 제를 올렸고 그렇게 수년간 제를 올리다가 제2할머니당이 형성된 것이다. 제2할머니당은 수협 뒤의 돌산 중턱에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며, 기와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다. 제단 정면 벽 위에 고비 모양의 성주가 모셔져 있을 뿐 제당의 신체를 상징하는 위패는

69) 2013년 5월 18일 대변 노인정에서 김성광 인터뷰.

없다.

요컨대 새마을운동기 대변별신곳은 '미신'이라는 시대적 풍조에 의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단절되었지만, 별신곳에 비해 적은 경비로 마을수호신을 제사지내는 1월제만·6월제만·10월제만을 지냈다. 즉, 반농반어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변주민들은 마을곳이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농사와 관련된 산신이나 조업과 관련된 용신에 대한 신앙심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으며 이는 1976년의 산신당과 1982년 용신당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별신곳의 재원인 어업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어촌계로 넘어가면서 별신곳에서 풍어제의 성격이 강화되고 풍농과 관련된 사설과 축원이 감소되고 산신이 풍어신적 성격으로 변화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2.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변별신곳

1970년대는 구습타파가 이슈가 되어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반면, 한편으로는 전통문화를 복원, 재창조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이슈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1961년 10월 현 문화재청의 전신(前身)인 문화재관리국이 개국되고 1962년 1월 10일에는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하여 사라지는 마을곳을 발굴하여 민속을 예술화한다는 입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민속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뒤이은 여러 민속학적 연구와 활동의 촉발점이 되었다. 무형문화재 정책과 민속예술경연대회가 1980년대까지의 국가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정책이었다면, 198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의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정책은 마을곳의 전통 축제화이다.

즉, 각 지방이 일정 부분에서 자치를 수행하게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다양한 여러 집단을 통합할 수 있는 기제로 각 지역의 전통 축제를 찾았는데, 마을긋이 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사례로 1980년대부터는 마을긋의 범주에 해당되는 풍어제(豊漁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지역의 특성을 위한 방안으로 마을긋이 선택되어 마을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문화표상이 되었는가 하면, 마을긋을 축제로 문화상품화하고 수익을 높이는 대상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⁷⁰⁾

이처럼 새마을운동의 '미신타파' 정책과 상반되는 마을긋을 문화재로 발굴하여 복원하는 풍조는 대변에서도 일어났다. 물론 대변에서 1980년대 말 별신긋을 하게 된 것은 기장에서 풍어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면서 재개된 것은 아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대변에서 선원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연이어 나서⁷¹⁾ 할머니들의 별신긋을 지내야 한다는 압력에 의해 재개되었다.⁷²⁾ 즉, 대변별신긋을 지내지 않아서 뱃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명사고가 연이어 나타났고, 이는 별신긋을 지내지 않은 신의 벌이라 생각하여 그 신앙심에서 복원된 것이다. 그리고 별신긋을 지낸 후로 마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믿음에서 대변 주민들의 골매기신에 대한 신앙심을 확인할 수 있다.

70) 김명자, 2009, 「앞의 논문」, 178쪽; 정유진, 2012, 「앞의 논문」, 176~179쪽.

71) “그게 내 신희 때니까 내가 4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88올림픽 전후로 해서. 저기 저 배에 선원이 8명에서 20명까지 들어가거든. 그래 선원이 다 전멸하고 그랬다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났는데. 풍어제를 다시 시작한 원인이 그런 사고가 나고 하니까. 그걸 하고 난 이후로는 우리 근동에 한 두 사람이 실족사한 것은 있어도 그런 큰 대형사고 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2013. 2. 14. 풍어제 자문위원 박정만씨 인터뷰).

72) “(젊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아니 많은 할매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했는데, 다행인지 어떤지 그거(별신긋)를 하고부터는 사고가 없는기라. 그러다 보니까 뭐라할꼬? 미신이 없다고도 못하겠고 있다고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2013. 2. 18. 대변 노인정에서 김성광씨 인터뷰).

반면 대변별신곳이 재개된 것은 주민들의 골매기신에 대한 신앙심 덕분이라고 해도, 기장군에서 풍어제 문화재지원금으로 나오는 5천만 원이 대변별신곳뿐만 아니라 기장의 다섯 마을이 별신곳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동해안별신곳은 1985년 2월 1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되었으며, 기장지역에서는 1996년부터 기장의 열세 포구 중 두모포(두호) - 무지포(대변) - 향곶포(학리) - 칠암외포(칠암) - 이을포(이천)가 군에서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별신곳을 지냈다. 그러다가 2013년에 공수포(공수)가 끼여서 2013년부터 두호-대변-학리-칠암-이천-공수가 6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별신곳을 하게 되었으며, 문화재 지원금이 5천만 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감소되었다. 대변별신곳의 경우 2013년 별신곳을 기준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마을의 공동자금, 제비추렴, 선주들의 기부금, 외부 기부금으로 별신곳의 경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풍어제 지원금이 별신곳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학리의 경우에도 2014년 별신곳의 총 경비 7천5백만원 중 4천5백만원이 문화재지원금으로, 풍어제 지원금이 별신곳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⁷³⁾

또한 1980년대 말부터 대변별신곳이 재개되면서 별신곳을 지내는 방식에 있어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새마을운동의 '미신타파' 정책으로 골매기 신에 대한 신앙심이 줄어들고 풍어제 지원금이 나오는 해에 맞춰서 별신곳을

73) 2013. 2. 18. 대변 노인정에서 김성광씨 인터뷰; 2014. 2. 15. 기장 학리별신곳에서 신한호(1938년생, 남) 인터뷰. 참고로 별신곳의 경비는 각종 행사로 벌어들인 마을 자금, 보상회돈, 별신곳 때 주민들 및 외부 인사들이 기부한 돈, 선주들이 기부한 돈, 문화재 지원비로 구성되며, 별신곳을 치루고 남은 경비는 다음 별신곳 경비로 예금된다.

지내다 보니 별신긔의 주기가 늘어났다. 그 예로 대변별신긔의 경우 일제강점기 때의 3년 주기의 별신긔가 해방 이후 5년 주기로 늘어났으며, 2014년부터는 6년 주기로 늘어났다. 또한 제주가 지켜야 되는 금기에 대한 부담과 제비 부담으로 별신긔를 지내지 않는 해의 제만들이 축소되었다. 즉, 1월제만, 6월제만, 10월제만 중 1990년대 초의 마을 회의에서 6월제만과 10월제만을 지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후 6월제만은 없어진 상태이며, 10월제만은 대변의 수협 뒤의 해룡암 보살이 골목할매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제만의 제수를 마련하고 이장이 제주가 되어서 제를 지내고 있다.⁷⁴⁾

둘째, 제주가 지켜야 되는 금기에 대한 부담으로 제주선정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변별신긔의 제주는 인근의 점바치나 마을에 신이 잘 내리는 사람이대를 잡아서, 그 대가 들어가는 집에서 제주를 맡았다. 그러나 현재는 제주가 1년간 지켜야 될 금기사항과 마을에 사고가 났을 경우의 책임추궁에 대한 부담으로 마을 사람들이 제주를 맡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집안에 부정이나 사고가 없고 내외가 다 있고 연세가 있는 분을 마을회의에서 정해서 제주의 임무를 맡긴다고 한다.⁷⁵⁾ 학리의 경우도 인근의 점바치나 마을에 신이 잘 내리는 사람이 골매기 할매·할배 신이 내려 대를 잡고 들어간 집에서 제주를 맡았으나, 현재는 이를 꺼려해서 선주협회에서 선주 두 명을 생기복덕을 봐서 선정해서 맡긴다고 한다.⁷⁶⁾

셋째, 새마을운동의 ‘외향적 근대화’, 즉 마을의 개발로 인해 마을제당이 소실되어 가고 있다. 일제강점기 대변에는 대변 할매

74) 2013. 2. 18. 대변 노인정에서 김성광·박대금씨 인터뷰.

75) 2013. 2. 18. 대변 노인정에서 김성광·박대금씨 인터뷰.

76) 2014. 2. 15. 기장 학리별신긔에서 신한호(38년생, 남) 인터뷰.

당, 주사당, 무양당산, 연화리 할배당이 있었다. 그러나 대변의 기장진으로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주사당은 2006년 마을의 도로 확장과 건물신축에 밀려 소실되었으며, 무양당산도 2013년 대변 별신굿 당시 건물 신축공사에 의해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산신당이나 제2할매당과 같이 종교적 심성에 의해 제당이 새로 건립되기도 하지만, 개발의 논리에 의해 유서 깊은 당집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새마을운동의 ‘미신타파’정책 및 과학·의료·위생의 발달에 의해 세미제(우물제)와 여제(전염병 방지제)가 사라졌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대변별신굿에서 당제 지내는 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2002~2013년 대변별신굿 당제 지내는 순서

연도	대변별신굿 첫날 당제 지내는 순서
2002	산신제→골목할매당제→새미제(우물제)→장수천왕장군제→거리대장군제→제2할매당제→척화비제→주사제 ⁷⁷⁾
2007	골목할매당제→산신제→거리대장군제→무향당산제→연화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제→연화리 할매당제→연화리 갯가→제2할매당제 ⁷⁸⁾
2013	골목할매당제→산신제→거리대장군제→무향당산제→연화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제→연화리 할매당제→연화리 갯가→제2할매당제 ⁷⁹⁾

위의 <표 2>에서 일제강점기 별신굿이나 제만에서 반드시 지냈던 세미제가 2002년부터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학리별신굿 또한 2003년까지 세미제를 지냈으나 2008년부터 지내지 않게 되

77) 김승찬, 황경숙, 2005, 『앞의 책』, 482쪽.
 78) 2007년 대변별신굿을 조사한 경기대 김은희 선생이 2014. 9. 26. 제보한 내용이다.
 79) 2013년 2월 24일 필자의 대변별신굿 당들이 순서를 참여 관찰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었다. 특히 학리에는 골매기할매제당 앞 좌측에 사각형의 시멘트 단이 있는데, 그곳은 한양각시라고 해서 한양에서 내려온 손님(홍역)을 막기 위해 할매당의 제사를 지낸 후 제상에 놓은 음식을 조금씩 회수하여 제를 올린 곳이다.⁸⁰⁾ 한양각시단은 2008년까지 제를 올리다가 2014년 학리별신긱에서 의료의 발달으로 홍역 방지제의 중요성이 떨어져 한양각시당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제를 지내기 않게 되었다.

IV. 맺음말

부산시 기장군의 여섯 마을, 즉 두호-대변-학리-칠암-이천-공수가 6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7일간 기장별신긱을 주최한다. 이는 강원도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의 동해안선을 따라 진행되는 동해안별신긱들 중 그 연행기간이나 마을 간의 협력의 측면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변의 별신긱이 제의 규모가 가장 크고, 또한 기장 수군진이 위치했던 주사당이 존재했던 유서 깊은 곳이기에 본긱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일제강점기부터 새마을운동을 거쳐 현재까지의 별신긱의 제의 공간·전승주체·제의에 있어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일제강점기의 대변별신긱은 지소에 신고를 하면 일제의 별 제재 없이 연행할 수 있었으며, 3년에 한 번씩 마을에서 제비추렴을 하여 이장단의 주최로 제를 올렸다. 제관선정은 무당이나 마을 인근의 점바치(점쟁이)가 대를 잡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제주는 별신긱을 지내기 전에 굿장문이라는 치성을 드리고 굿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추워도 냇가

80) 2014. 2. 15. 학리 골매기할매당에서 장철룡씨 인터뷰.

에서 목욕재계를 했다. 그 당시 대변의 마을제당은 대변에 두 곳(현재의 할매당, 주사당), 무양리에 한 곳(무양당산), 연화리에 한 곳(현재의 할배당)이 있었다.

둘째, 해방 후 새마을운동기에 대변별신곳은 '미신'이라는 시대적 풍조에 의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단절되었지만, 별신곳에 비해 적은 경비로 마을수호신을 제사지내는 1월제만·6월제만·10월제만을 지냈다. 즉, 반농반어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변주민들은 마을곳이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농사와 관련된 산신이나 조업과 관련된 용신에 대한 신앙심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으며, 이는 1976년의 산신당과 1982년 용신당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별신곳의 재원인 어업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어촌계로 넘어가면서 별신곳에서 풍어제의 성격이 강화되고 풍농과 관련된 사설과 축원이 감소되고 산신이 풍어신적 성격으로 변화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후 대변별신곳은 연이은 인명사고로 별신에 대한 신앙심에서 별신곳이 재개되었으며, 동해안별신곳이 1985년 2월 1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되어 1996년부터 기장군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자 그 지원금이 나오는 해에 맞추어 별신곳의 주기가 늘어났다. 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제만들은 소멸·축소되었으며, 근대화의 개발에 맞추어 마을제당들이 소실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금기에 대한 부담으로 마을제관을 꺼려하여 기존의 대를 잡아 선정하는 기준에서 마을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과학·의료·위생의 발달에 의해 세미제(우물제)와 여제(전염병 방지제)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변별신곳은 근대 이후 시대별 정책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특히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체의 문화재지원금에 의

해 별신긋이 급속히 세속화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6년간 마을에서 돈을 모아 7일간의 제를 정성스럽게 올리는 기장별신긋에서 그 신앙심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부산지방의 종교문화를 대표하는 기장별신긋을 비롯한 부산별신긋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 학리를 비롯한 기장의 다섯 마을의 별신긋에 대한 연구를 차후 과제로 남겨두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김승찬, 황경숙, 2005, 『부산의 당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482~3쪽, 502쪽.
- 김형근, 2012, 『남해안굿연구』, 민속원, 347쪽.
- 이능화, 서영대 옮김, 2008, 『조선무속고』, 창비, 443쪽.
- 윤동환, 2010,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민속원, 147쪽, 188쪽.
- 주영하, 남근우, 임경택(공저), 2009,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민속』, 한국학중앙연구원, 164쪽.
- 黃龜, 2013, 「18~19세기 기장수군(水軍)과 남산봉군(烽軍)」,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별 사료조사위원 워크숍』, 국사편찬위원회, 56쪽.
- 향토사연구실, 2012, 『기장의 문화지도: 기장의 아홉포구 답사체험길』, 기장문화원, 70쪽.
- 김명자, 2009, 「새마을 운동에 따른 洞祭의 변화」, 『민속연구』 제19집, 177~220쪽.
- 문혜진, 2014, 「1930년대 심전개발운동과 마을굿: 무라야마 지준의 『부락제』와 경성부 마을굿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vol. 15(2014. 6),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167~200쪽.
- 靑野正明, 2010, 「朝鮮總督府의 「心田開發運動」과 「類似宗教」彈壓政策」, 『동국대학교 일본학』 31권, 161~185쪽.
- 이창언, 2011, 「춘락공동체신앙 전승의 현재적 의미: 경북 문경시 부곡리 별신굿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9권, 219~249쪽.
- 유승훈, 2003, 「京江邊 府君堂의 性格과 歷史的 發展 樣相」, 『서울학연구』 20, 101~137쪽.
- 윤동환, 2005, 「별신의 양상과 성격: 19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0집, 245~284쪽.
- 심상교, 2005, 「영남동해안지역 풍어제의 연행특성과 축제성」, 『한국

- 무속학』 제 10집, 131~180쪽.
- 정유진, 2012, 「박정희 정부기 문화재정책과 민속신앙 : 국사당과 밤섬 부군당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39호, 175~213쪽.
 - 조정현, 2008, 「동해안별신긔의 토대와 물질문화 전승」, 『한국무속학』 제17집, 155~186쪽.
 - 조태흠, 1996, 「기장지방의 세시풍속」, 『한국민족문화』 8, 421~441쪽.
 - 村上重良, 2006, 『国家神道と民衆宗教』, 吉川弘文館, 78쪽.
 - _____, 2007, 『天皇制国家と宗教』, 株式會社 講談社, 188~189쪽.
 - 秋葉隆, 1933, 『朝鮮民俗』 第一號, 朝鮮民俗學會, 16~17쪽.
 - 岩下傳四郎, 1941, 『大陸神社大觀』, 京城府 : 大陸神道聯盟, 401~403쪽.
 - 辻子実, 2003, 『侵略神社』, 新幹社, 192쪽.
 - 都甲玄郷 編, 1937, 『釜山府史原稿』, 釜山府 : 民族文化, 310쪽, 315쪽.

인터넷사이트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main/dic_index.jsp

『조선총독부 관보』, gb.nl.go.kr

투 고	심 사	완 료
2014.10.31	2014.12.5	2014.12.12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기장별신굿 중 가장 규모가 큰 대변별신굿을 그 연구대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새마을운동을 거쳐 현재까지의 다변성을 내포한 대변이라는 장소에서 별신굿의 제의 공간·전승주체·제의에 있어서의 변화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승주체의 경험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 별신굿을 경험한 주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제의 공간 및 제의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7일간의 대변별신굿을 참여 관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일제강점기의 대변별신굿은 지소에 신고를 하면 일제의 별 제재 없이 연행할 수 있었으며, 3년에 한 번씩 마을에서 제비추렴을 하여 이장단의 주최로 제를 올렸다. 제 관선정은 무당이나 마을 인근의 점바치(점쟁이)가 대를 잡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제주는 별신굿을 지내기 전에 굿장문이라는 치성을 드리고 굿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추워도 냇가에서 목욕재계를 했다. 그 당시 대변의 마을제당은 대변에 두 곳(현재의 할매당, 주사당), 무양리에 한 곳(무양당산), 연화리에 한 곳(현재의 할매당)이 있었다.

둘째, 해방 후 새마을운동기에 대변별신굿은 '미신'이라는 시대적 풍조에 의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단절되었지만, 별신굿에 비해 적은 경비로 마을수호신을 제사지내는 1월제만·6월제만·10월제만을 지냈다. 즉, 반농반어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변주민

들은 마을긋이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농사와 관련된 산신이나 조업과 관련된 용신에 대한 신앙심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으며, 이는 1976년의 산신당과 1982년 용신당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별신긋의 재원인 어업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어촌계로 넘어가면서 별신긋에서 풍어제의 성격이 강화되고 풍농과 관련된 사설과 축원이 감소되고 산신이 풍어신적 성격으로 변화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후 대변별신긋은 연이은 인명사고로 별신에 대한 신앙심에서 별신긋이 재개되었으며, 동해안별신긋이 1985년 2월 1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되어 1996년부터 기장군에서 문화재지원금이 지급되자 그 지원금이 나오는 해에 맞추어 별신긋의 주기가 늘어났다. 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제만들은 소멸·축소되었으며, 근대화의 개발에 맞추어 마을제당들이 소실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금기에 대한 부담으로 마을제관을 꺼려하여 기존의 대를 잡아 선정하는 기준에서 마을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과학·의료·위생의 발달에 의해 세미제(우물제)와 여제(전염병 방지제)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핵심주제어 : 기장별신긋, 대변별신긋, 일제강점기 별신긋,
새마을운동, 별신긋의 세속화

【Abstract】

Historical Landscape of Modern Daebyun Byeolsingut

Mun, Hea-Jin / lecturer(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how Daebyun Byeolsingut, the biggest village festival in Gijang, has been changed from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o today, especially in the aspect of ritual place, ritual performers and ritual itself. Research methods of this paper were based on previous studies of Byeolsingut, while having an interview with ritual performers and participants of Daebyun Byeolsingut in order to identify how residents in Daebyun has experienced Byeolsingut and participating and observing Daebyun Byeolsingut in 2013 in order to identify how ritual places and ritual have been changed.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ree points. First, Daebyun Byeolsingut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was permitted with notification to the police and was performed every three years by heads of a village. The masters of religious rite were selected by the direction of bamboo that a fortune teller near a village grabbed. Ones selected like this offered a devout prayer, so-called Gutgangmun, before opening Byeolsingut and should bathe one's body and purify oneself in a stream until the closing day of Byeolsingut. At that time, there were two village shrines in Daebyun and one village shrine in both Muyang-ri and

Yeonwha-ri.

Second, Daebyun Byeolsingut in the period of Saemaul Movement was halted from the mid of 1970s to the end of 1980s by tendency toward breaking of superstition. Instead, people in Daebyun performed the community rites, Jeman, which costed cheaper than Byeolsingut, in January, June and October. In other words, residents in Daebyun, who were employed in subsistence farming and fishing, considered the village gut as 'superstition' but still believed in mountain god of agriculture and sea god of fishing; it made people build the shrine for mountain god in 1976 and the shrine for sea god in 1982.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ritual for a big catch of fish in Byeolsingut strengthened because the ownership of fishery resource was transferred to fishing village fraternities. For example, praying related to good harvest was reduced and mountain spirit revealed character of sea spirit.

Finally, Daebyun Byeolsingut has been performed again since 1980s because of an iliad of a drowning accident. 1 February 1985, Donghaean Byeolsingut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 82, as a result, cultural properties aid was offered; villages, which performed Byeolsingut, became to hold it only at the year that cultural properties aid was offered. It caused increasing the cycle of Byeolsingut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community rites, Jeman, without cultural properties aid decreased or disappeared, and village shrines also showed tendency of disappearance. In addition, the method of selection of masters of religious rite changed from the house that bamboo pointed to panchayat because taboo of masters of

religious rite was burdensome.

Key words : Gijang Byeolsingut, Daeyun Byeolsingut,
Byeolsingut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Saemaul Movement, Sacularization of Byeolsingut